농촌진흥청 동정 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 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11. 2.(월)

농촌진흥청, 국산 열풍건초 이용 확대 현장 목소리 청취

- 11월 2일 익산 열풍건초 생산·유통 현장 찾아
- 올해 말 산업 분야에 국산 열풍건초 100톤 공급 현황 점검
- 한우·젖소 농가 등으로 이용 확대…생산·공급 기반 강화 방안 논의

농촌진흥청 이승돈 청장은 11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용안 영농조합법인을 찾아 국산 열풍건초 생산·유통 현황을 살피고, 이용 확대를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농촌진흥청과 한국마사회가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으로 마련됐다. 말 산업 분야에서의 국산 열풍건초 공급 현황을 확인하고, 생산·유통 과정상 어려움과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이 청장은 풀사료를 뜨거운 바람으로 건조한 뒤 일정한 크기로 압축·포장하는 생산 공정을 둘러봤다. 이어 경영체·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건조 효율과 품질 균일성을 높이고, 생산·유통 비용은 낮추는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신용안 영농조합법인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열풍건초 생산기술을 도입해 건조부터 압축·포장, 유통까지 이어지는 생산 체계를 갖춘 경영체다. 올해에만 말 산업 분야에 국산 열풍건초 100톤을 공급했으며, 앞으로 공급 물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열풍건초 생산기술은 잦은 비 등으로 풀사료를 자연 상태에서 말리기 어려운 국내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해당 경영체와

현장 실증을 통해 건조 효율과 품질을 높이고, 운반과 보관이 편리하도록 압축·포장 기술을 개선해 왔다.

농촌진흥청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생산기술을 보완하고, 관련 정책사업과 연계해 국산 열풍건초 생산·공급 기반을 넓혀갈 계획이다. 또한, 말 산업 분야의 공급 경험을 바탕으로 한우·젖소 농가와 섬유질배합사료(TMR) 제조업체 등으로 공급처를 확대해 수입 건초를 대체할 방침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국산 건초 이용을 늘리려면 품질이 균일한 건초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기술 개선과 보급에 반영해 국산 건초의 경쟁력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열풍건초 생산·유통 현장 방문 계획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조사료생산시스템과	책임자	과 장	이상훈 (041-580-6740)
		담당자	연구관	정종성 (041-580-674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붙임 **열풍건초 생산 · 유통 현장 방문 계획**

□ 방문 개요

○ 일시: ’26. 11. 2.(월), 14:00～15:00

○ 장소: 열풍건초 생산현장 및 한우농가

*** 열풍건초 생산 경영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안면 강변로 1116-74**

○ 주요내용

- 열풍건초 생산현장 및 유통현장 시찰, 운영상 애로사항 청취

* 열풍건초 생산: 열풍건초 활용 건초 생산, 포장 공정 등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이 동(농진청 → 익산)	
14:00～15:00	60분	◦ 열풍건초 생산현장 방문 및 현황보고 - 생산유통현장 시찰 및 애로사항 청취	조사료과장
15:00～16:10	70분	◦ 이 동(익산 → 정읍 한우농가)	